



## 20년 마지막 수급 이벤트

### 1. 현대중공업 보호예수 해제

- 현대중공업은 12/17(금)에 상장주식수 대비 4.5%의 보호예수 물량이 해제
- 실질적인 유통물량 10.4% 수준을 감안하면 단기 비중축소는 불가피. 동사 공모가 3개월 확약에 편중된 결과로 매물 소진 시 비중확대 계기가 될 것

### 2. FTSE 지수 리밸런싱

- FTSE 지수의 리밸런싱도 12/17(금)에 진행. 수급적 유의성이 있는 종목은 크래프톤, 카카오뱅크, SK아이이테크놀로지, HK이노엔의 편입
- 20.12월 SK바이오팜. 21.6월 하이브 편입을 보면 리밸런싱 주간에 외국인 매수유입과 인덱스 효과가 강화되는 경향

### 3. 오버행 소강 구간에서 점증될 인덱스 효과

- 카카오뱅크는 넷마블의 지분 전량처분으로 오버행 이슈는 완화
- SK아이이테크놀로지도 프리미어 슈페리어의 블럭딜 이후 매도유예 시사로 추가 매도 부담은 낮아진 편
- HK이노엔은 KOSDAQ150 편입 모멘텀 이후 메디카홀딩스의 지분매각으로 주가는 부진. 동 지분은 21.2월까지 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덱스 효과가 저해되지 않을 것

## 1. 현대중공업 보호예수 해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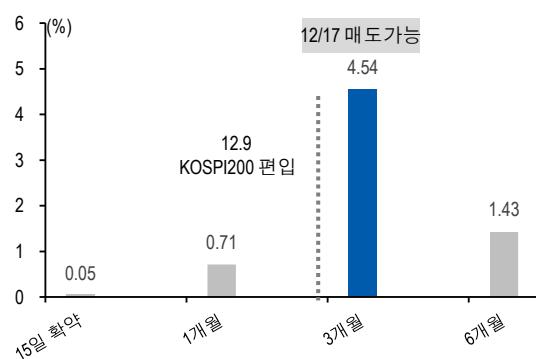
사실상 올해 마지막 수급 이벤트를 접점했다. 우선 현대중공업은 12/17(금)에 3개월 보호 예수 물량이 해제된다. 현재 공모참여자의 초과수익률은 +76.7%p로 매물출회 유인이 높아 보인다.

상장주식수 대비 4.5%의 물량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. 동사의 높은 대주주 지분율 등으로 실질적인 유통물량이 10.4% 수준임을 감안하면 매도충격이 더 클 수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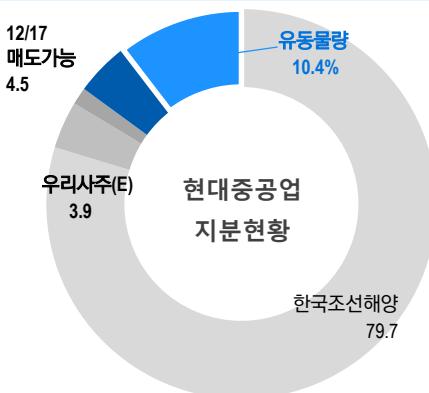
12월 KOSPI200 리밸런싱 종료로 지수편입 모멘텀은 소멸되었고, 대차잔고는 시총대비 0.40%까지 상승했다. 지수편입 직후 0.09%의 공매도도 출회되고 있다. 절대적인 수준은 타 종목 대비 낮지만 동사의 유통물량이 적음을 시사하는 부분이다.

다만, 동사 공모는 3개월 확약에 편중된 경향이 높기 때문에, 이번 매물이 소진된다면 비증학대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.

[차트1] 현대중공업의 3개월 확약물량의 보호예수해제는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것



[차트2] 실질적인 유통물량이 적기 때문에 매도충격이 더 클 수 있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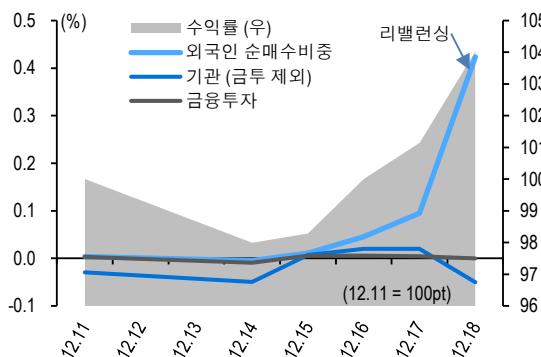
## 2. FTSE 지수 리밸런싱

12/17(금)은 FTSE 지수의 리밸런싱일이기도 하다. MSCI 지수 대비 추종자금 AUM이 낮지만, 리밸런싱 주간의 인덱스 효과는 양호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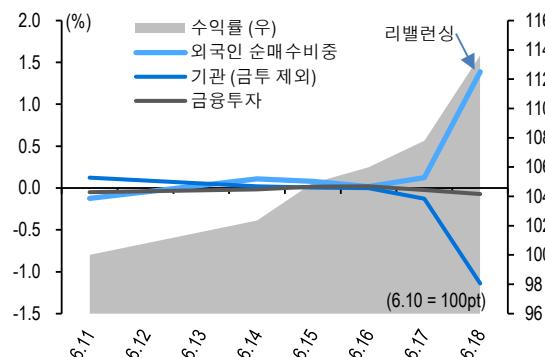
이번 지수변경은 IPO 종목 등을 반영하는 light 리밸런싱 측면이 있기 때문에, 편입입이나 승격/강등 종목 수는 제한적인 편이다. LX홀딩스의 하위지수 강등, F&F의 승격 이슈도 있지만, 수급적 유의가 있을 부분은 크래프톤, 카카오뱅크, SK아이이테크놀로지, HK이노엔의 편입으로 생각된다.

특히 대형주는 리밸런싱 분기 특징, 시가총액 규모, MSCI 지수편입/비중상향 이후 이벤트 임을 감안하면, 20.12월 SK바이오팜, 21.6월 하이브 편입 케이스는 참고할 만하다. 상술한 측면에서 이번 정기변경 예상 수급을 보수적으로 추정했지만, 해당 종목의 수급효과는 유의적일 것으로 판단된다.

[차트3] 20.12월 SK바이오팜 FTSE 편입. 리밸런싱이 임박한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유입이 강화되는 경향



[차트4] 21.6월 하이브 편입



[표1] 12월 FTSE 정기변경 예상 수급

구분	Code	종목	평균 거래대금	시가총액	순매수 예상	거래대금 대비	시총대비	1M 수익률	3M 수익률
대형주 편입	A259960	크래프톤	2,385	239,642	1,703	0.71	0.71	-10.5	8.4
	A323410	카카오뱅크	1,619	301,251	1,015	0.63	0.34	2.1	-1.9
	A361610	SK 아이이테크놀로지	1,225	123,345	485	0.40	0.39	-1.7	-25.8
소형주 편입	A195940	HK 이노엔	399	16,360	41	0.10	0.25	2.9	-8.4
소형→대형	A383220	F&F	463	66,118	109	0.24	0.17	-6.4	13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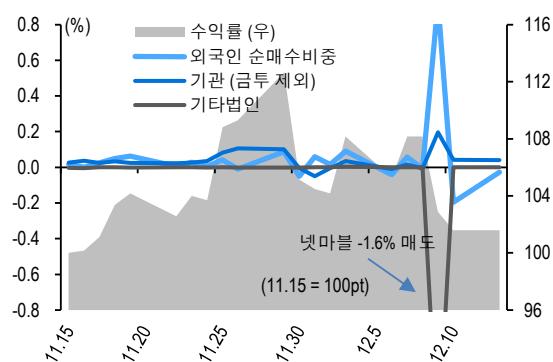
### 3. 오버행 소강 구간에서 점증될 인덱스 효과

9월 FTSE에 편입된 SK바이오사이언스는 언더퍼퓸했는데, 지수편입보다는 6개월 확약 보호예수 해제 오버행에 대한 수급부담이 더 강했기 때문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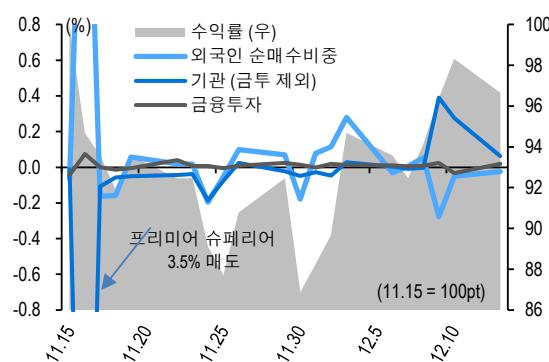
이번 편입이 확정된 종목들도 오버행 이슈에 수급이 크게 개선되지 못했지만, 인덱스 편입기간 동안 관련 이슈는 부담이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.

우선 카카오뱅크는 넷마블의 보유지분 처분이 12/9에 완료되었다. SK아이아이테크놀로지도 프리 IPO에 취득한 프리미어 슈페리어의 블럭딜이 출회되었지만, 이후 처분은 유예기간을 가질 것을 시사하면서 추가적인 오버행 부담은 낮아졌다. HK이노엔은 KOSDAQ150 정기변경 발표 모멘텀 직후 FI 투자자인 메디카홀딩스가 상장주식수 대비 6.9% 지분을 처분하면서 주가는 부진했다. 이후 잔여물량은 내년 2월까지 보호예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처분이 불가능하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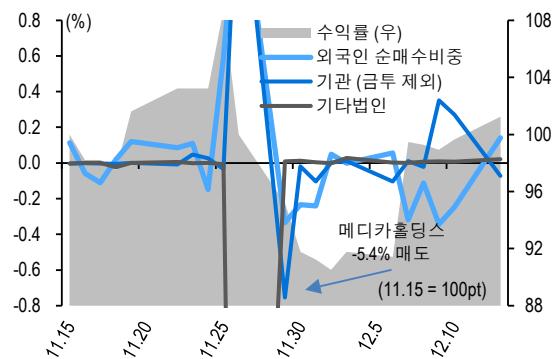
[차트5] 넷마블의 지분 전량처분으로 카카오뱅크 오버행 이슈는 완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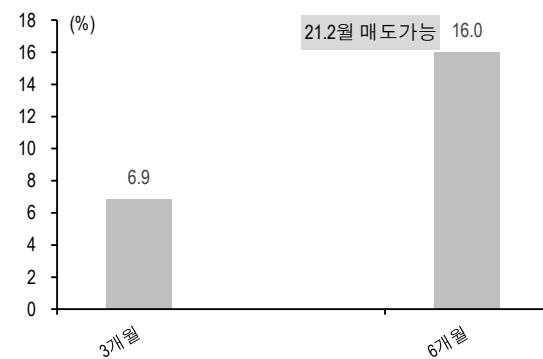
[차트6] 프리미어 슈페리어는 SK 아이아이테크놀로지의 블럭딜 이후 추가매도는 유예기간을 가질 것을 시사



[차트6] HK이노엔의 KOSDAQ150 편입 발표 이후 메디카홀딩스의 지분처분으로 주가는 부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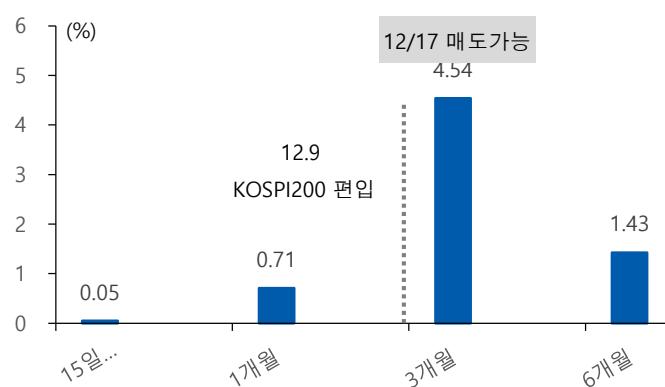


[차트7] 장기적인 출회가능 물량은 높은 수준이지만 보호예수 설정으로 21.2월까지 매도 불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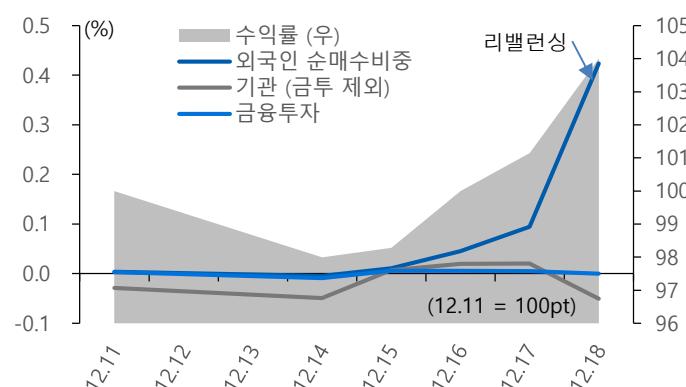
## Key Chart

현대중공업의 3개월 확약물량의 보호예수해제는 매물 부담으로 작용할 것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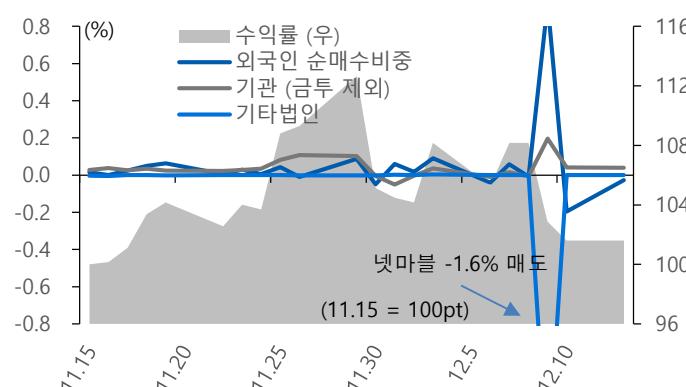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리밸런싱이 임박한 시점에서 외국인 매수유입이 강화되는 경향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

편입 종목의 오버행 이슈 완화로 인덱스효과가 저해되지 않을 것



자료: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